

조각가 김용우 서울서 개인전



'식이네 가족 이야기'

조각가 김용우씨가 25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공분관에서 12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김씨는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형상화 한 테라코타 조각품 등 30여점을 선보인다.

풍만하게 표현된 인물은 경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휴식을 주는 가족과 이웃의 모습을 담았다. 또 눈두덩을 두툼하게 만들어 귀엽고 친근한 가족애를 돋보이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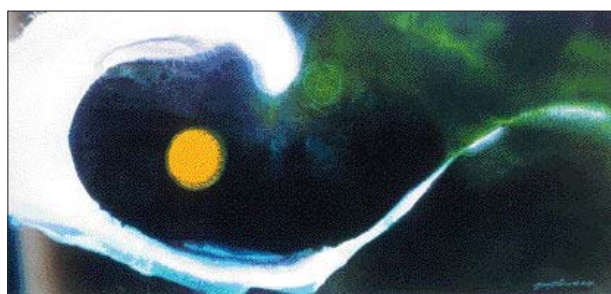
나란히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빛은 '사랑하는 아들이'와 엄마와 아이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속삭임' 등이 대표적인 가족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또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한 브론즈 조각품인 '큰 나무 가족' '사랑의 계절' 등도 눈에 띈다.

김씨는 호남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한 뒤 현대아트갤러리, 토 아트 스페이스 등지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 광주시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지냈다. 현재 전국조각가협회, 남도조각가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오광북기자 kroh@kwangju.co.kr

서양화가 김용관 중국 전시 활발



'人生史 - 生成'

서양화가 김용관씨가 세계 3대 미술시장인 중국에서 잇따라 전시회를 여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김씨는 8월21일~10월30일까지 중국문화성 등이 주관하는 '2008 동아시아 시각 예술전'에 초대작가로 선정됐다. 이번 전시는 아시아 각국 60명의 작가들이 참여하며 한국에서는 김춘옥, 권정찬, 김태라 등 6명이 초대됐다.

앞서 김씨는 8월1일~30일까지 자하화랑에서 첫 번째 북경 개인전을 연다. 자하화랑은 조선화랑이 북경에 진출해 개관한 곳이며, 김씨는 이 전시에서 200여 크기의 20점 등 대작 중심으로 70여 점을 선보인다.

김씨는 이번 중국 전시회에 '인간사-생성'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이다. 빛에 반사되는 사물의 외연과 빛의 변화를 통해 우주의 생성, 진화 과정을 담은 독특한 작품들이다. 신비한 우주의 광선과 빛, 웅숭뭉치는 원초적인 생명력을 그리고 있다.

조선대학교 회화학과를 졸업한 김씨는 현재 담양 창경고 미술교사로 재직 중이다.

/오광북기자 kroh@kwangju.co.kr



夏夏... 樂樂... '문화피서' 떠나요

연극에서 락음악까지 전국 곳곳 '문화축제' 피서 즐기며 공연 감상 특별한 여름 만들기

고유가, 고물가의 영향으로 외국 여행 대신 '휴가 다이어트'에 들어간 가정이 많다. 올 여름엔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문화 축제에 참여해 보는 건 어떨까. 표값도 저렴하고, 무료 공연도 많아 잘만 고르면 피서도 즐기며 다양한 공연도 감상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좀 더 적극적인 관객이라면 아예 축제에 맞춰 휴가 일정도 짜도 좋다.

▲연극, 인형극, 클래식 공연 장르 다양

올해로 20회를 맞는 거창국제연극제(25일~8월10일)는 시원한 계곡이 자리잡은 수송대 야외극장에서 공연이 진행된다. 집에서 휴가와 문화가 완벽하게 결합된 축제다. 관객들은 한낮에는 계곡물에 몸을 담그며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오후 7시부터는 수송대 일원에 흩어진 10여개의 야외극장을 찾다니며 연극을 관람하면 된다. 올 축제에서는 개막작인 뮤지컬 '위대한 캣츠비'를 시작으로 프랑스, 러시아 등 10개국 47개 팀이 모두 192회 공연한다.

연출가 이윤택씨가 조성한 밀양연극촌에서 벌어지는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25일~8월3일) 역시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들러볼 만한 행사다. 폐교를 개조해 만든 밀양연극촌 숲의 극장에서 아시아 3국의 발놀이 '야유'(夜遊)를 시작으로 국내외 초청연출가 전과 젊은 연출가들 등 30여편의 연극이 선보인다.

'2008 무주리조트 뮤지컬 페스티벌'(20~26일)은 유라시아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지휘자 금남새씨가 음악감독으로 참여한 축제다.

페스티벌 절정은 26일 2만여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무주리조트 점핑파크 야외무대에서 열리는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100여명의 연주자들이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 등을 들려준다.

줄리어드 음대교수인 강요씨가 이끄는 '대관령국제음악제'(8월7일~17일)는 강원도 용평리조트에서 클래식팬들을 만난다. 리처드 오제오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세종솔로이스츠와 정명화·지안 왕 등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초청됐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춘천인형극제'(8월6일~16일)는 어린이들을 위한 즐거운 축제다. 프랑스 뽀뽀몽드의 '뽀뽀', 러시아 퍼펫하우스의 '신데렐라', 극단 수레무대의 '유모차에 실린 작은 동화' 등 공식 초청작들이 공연되며 아마추어 인형극 경연대회도 함께 열린다. 경남 삼천포대학교 공연에서는 '2008 사천세계타악축제'

강원도 속초에서는 대규모 대중음악 공연이 열린다. 속초시가 주최로 속초시 청초호 야외무대에서 '대한민국 음악 대항연'(8월 12일~16일)은 트로트, 발라드, 테크노 등 다양한 장르의 대중음악을 5일 동안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인순이, 슈퍼주니어, 서인영, 장윤정 등 톱스타들이 총출동하며 특히 해마다 관심을 모으는 '빅 콘서트'에서는 '라이브 황제' 이승환의 무대가 마련돼 있다.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펜타포트록페스티벌'(25~27일)은 인천 송도에 마련된 9만평(약 30만㎡)에 달하는 대지에서 음악팬들을 만난다. 미국의 우드스탁을 꿈꾸는 국내 최대 규모의 록 음악 행사로 트래비스(Travis)와 언더월드(Underworld) 등 6개국 21개 팀이 무대에 오르며 국내에서도 이상은, 델리스파이스 등 37개 팀이 출연할 예정이다.

Table with 4 columns: Festival Name, Dates, Location, Website. Includes events like '거창 국제 연극제', '밀양 여름공연 예술축제', '무주리조트 뮤지컬 페스티벌', etc.

침체된 지역문학 활로 모색

'광주·전남 현대문학연구소' 문 열어

'시와 사람'은 오는 25일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금동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오탁번 한국시인협회장 등 주요 문인들을 초청, 개소식을 갖는다.

함께 오는 8월 31일까지 서경주, 조병화, 김춘수, 이형기, 박재삼 등 작고 시인을 비롯해 김지하, 고은, 김규동 등 원로 시인 30명을 선정해 육필 원고전을 연다.

문화연구소에서는 유명작가의 특별강연, 세미나 등의 각종 문화모임을 비롯해 전시회, 시낭송회 등 다양한 문학행사 등이 개최된다. 이밖에 문학관련 서적을 비치, 문화도서관의 기능도 갖춰 문인과 독자들을 위한 다목적 문화공간이 될 예정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학생 관객 '모셔야' 하는 이유

"예술 애호가는 물론 청소년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예술의 장(場)으로 이끌겠다."

최근 서울 예술의 전당(이하 예술의 전당) 수장으로 임명된 신홍순 신임 사장의 일성(一聲)이다. 순수예술이든 대중예술이든 대중에게 '뉴티플 라이프'를 선사하겠다는 게 그의 청사진이다. 이 가운데 청소년 관객들을 적극 끌어안겠다는 그의 포부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신선함을 주었다.

사실 공연계에서 학생(청소년)관객들은 '반갑지 않은 손님'으로 통한다. 성인에 비해 학생 관객의 티켓가격이 20~30% 정도 저렴하다 보니 공연 주최측에선 돈이 안되기 때문이다. 학생들도 열매를 따려는 마냥까지. 이른바 목 좋은 좌석은 대부분 어른들 차지여서 학생들은 객석 2층 구석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이들 '로얄석'에서 풀나게 뮤지컬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뮤지컬 공연사들이 운영하는 '러쉬티켓(rush ticket)' 덕분이다. 러쉬티켓은 선착순으로 특정 블록의 좌석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으로 '제너럴 러쉬(general rush)'와 '스튜던트 러쉬(student rush)'가 있다. 제너럴 러쉬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돌아가는 반면, 스튜던트 러쉬는 티켓 구매시 학생증을 제시한 학생들에게 주어진다. 청소년들에게 고가의 공연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학생증을 제시하면 100달러 이상의 뮤지컬도 25~35 달러에 볼 수 있다.

스튜던트 러쉬 티켓은 클래식 공연에서도 폭넓게 통용된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은 공연 당일 오전부터 29세 이하 학생들에게 100달러 이상의 티켓을 25~35달러에 할인 판매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청소년 관객들을 겨냥한 공적 마케팅이 활발하다. 지난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로데트랩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 주최측은 B·C석의 일부 티켓을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초등생부터 대학생에게 모두 50% 할인 가격에 판매했다. 최근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한 국립오페라단은 VIP석에서부터 C석에 이르기까지 전 좌석을 대상으로 학생증을 제시하면 40%까지 할인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청소년 관객은 미래의 문화애호가다. 어린 시절의 예술체험이 먼 훗날 문화관광으로 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학생티켓은 음악 저변층을 확대할 수 있는 '골든티켓'이다. 문화수도 광주의 공연계가 '스튜던트 마케팅'에 눈을 돌려야 하는 이유다.

문화연구소에서는 유명작가의 특별강연, 세미나 등의 각종 문화모임을 비롯해 전시회, 시낭송회 등 다양한 문학행사 등이 개최된다. 이밖에 문학관련 서적을 비치, 문화도서관의 기능도 갖춰 문인과 독자들을 위한 다목적 문화공간이 될 예정이다.

문화연구소에서는 유명작가의 특별강연, 세미나 등의 각종 문화모임을 비롯해 전시회, 시낭송회 등 다양한 문학행사 등이 개최된다. 이밖에 문학관련 서적을 비치, 문화도서관의 기능도 갖춰 문인과 독자들을 위한 다목적 문화공간이 될 예정이다.

/문화기획부장 jhpark@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movies and theaters. Includes sections for 'Happy Time 영화안내', '메가박스', '엔터 시네마', '콜롬버스 시네마', '씨너스 전대', '하미 시네마', and '제일 시네마'. Each section lists movie titles, showtimes, and prices.